

現代니트웨어 디자인의 變遷과 特性에 關한 研究

-1920年代 以後를 中心으로-

崔京姬* · 李順洪

誠信女子大學校 衣類學科 大學院 博士課程*, 誠信女子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Desig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Knitwears

- Focusing on the 1920's After -

Kyung-Hee Choi* and Soon-Hong Le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knitwears from the 1920's to the 1990'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popular knitwears in the 1920's had a simple boxy-line and modern unisex image with a sporty look. The knitwears in the 1930's-1950's had seen more short, feminine detail and texture, fit silhouette with synthetic fibers.

In the 1960's, the knitwears of sporty look and unisex style was popularized by young peoples, and crochet with handknitting by the fiber artists was popularized.

In the 1970's-80's, the layered looks and unisex styles of knitwears were popularized by influence of a ecology mood and a woman movemant. And various patterns was developed with the computer machine. The items of outer knitwear was increased by the use of fancy yarns and the knitwears as the total fashion was popularized.

In the 1990s, the knitwears had a very forceful characteristics by the mixed style and the technique of design developed into the post-modernism.

The key words of the character of the modern knitwears are funtional pursuit, unisex, high value, high-technique, art. By the change of the life style and the developpe of technical innovation, the knitwears will be the key item to leading the fashion in the 21th.

I. 서론

최근 패션동향과 스트리트 패션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니트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호와 유행을 들 수 있다. 종래의 내의와 소품에 국한되었던 니트제품이 최근에는 스포츠웨어를 비롯하여 패션성이 큰 여성정장, 남성복 등 겉옷에 이르기까지 고부가가치 패션제품으로 발전하여 선진 국형 의복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와 스포츠가 대중화되고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되어 가는 소비자들의 라

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캐주얼 지향의 패션마인드의 강세로 편안하고 활동적인 니트웨어가 부각되어, 니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고급화되고 특히 젊은 층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니트웨어의 우수한 신축성에 의한 활동적이고 편안함과 최근 소재의 복합성과 편기의 자동화에 의한 디자인의 다양성과 고급화는 개성적인 표현을 중요시하는 현대의상의 유행에 부합되어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토탈 패션으로 변모해가며, 공예로서 새롭게 재조명되어 최근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컬렉션에 점점 비중있게 저마다의

개성있는 니트웨어를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는 그 용도가 다양화되어 의류용뿐만 아니라 장식품으로도 직물을 능가할 만큼 다방면에 이용되고 있다. 외출복, 통근복, 여행복 위에도 장갑, 양말, 혹은 머플러, 핸드백 등의 액세서리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외에 쿠션, 식탁보 등의 실내 장식품이나 액자나 스크린, 벽걸이 등의 수예작품에 이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니트가 오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으로서 대중화되고 본격적으로 발전되어진 192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1990년대까지의 각 시대별로 니트웨어에 발달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니트웨어의 변천과정과 현대니트웨어의 특성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니트에 관한 일반적 고찰과 현대니트웨어의 변천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과정에 대해 선행 연구 및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또한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실제 패션지에 실렸던 시대별 대표적인 니트웨어 사진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각 시대별 니트웨어 디자인의 변천과정과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축적으로 더욱 패션화되고 토탈화되어가는 현대니트웨어가 발달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니트웨어의 변천과정을 조사함으로써, 현대니트웨어의 디자인 특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로써 앞으로의 섬유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나갈 니트웨어의 디자인의 경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토탈패션으로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니트웨어의 흐름을 정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니트의 일반적 고찰

1. 니트의 개념

니트(knit)의 어원은 손뜨개를 뜻하는 영어의 '맨다', '맨매듭'을 의미하는 색슨어의 니탄(nytan)에서 비롯되었다.¹⁾

니트를 뜻하는 의미로는 재료와 기법을 불문하고 모든 것의 편조 직물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실 또는 끈 상태의 소재에 의하여 코(loop)를 만들어 연결하여 선이나 면 상태로 구성하는 수법이나 그 작품을 뜻한다.

니트란 니팅과 관련된 용어로 메리야스, 편성물, 편물, 편직 등 여러 말들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수편물과 그 기법을 가리켜왔으나 일반적으로 동력기계에 의한 것은 메리야스 또는 니트라고 불리는 반면, 직물상태의 것은 트리코, 저지 등으로 구분하여 부른

다.²⁾

니트는 손뜨개와 기계로 뜨는 것이 있으며 직물형태로 편직된 것을 재단하거나(cut and saw) 또는 형태를 만들면서 편직하여 봉제하는 것(full fashion)으로 스웨터, 편성슈츠, 폴로 셔츠, 속옷, 양말, 장갑, 모자 등을 비롯하여 우리 몸에 걸치는 것을 의미한다.³⁾ 섬유의 물리적 성질과 직조 과정상의 구조에 있어서 직물보다 신축성이 크고 보온성이 높아서 이전에는 주로 방한용이나 내의류로 많이 사용되었다.

용구나 뜨기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이 있으며 뜨기의 명칭도 다양하다. 재료의 성질과 무늬에 따라서 여름용, 겨울용 춘추용으로 구분된다.

오늘날 니트에 대한 개념이 보온용, 방한용 의류에서 벗어나 예술적 표현성을 주목받아 의상디자이너의 표현 영역을 넓히는 주요 아이템이 되었다.

2 니트의 특성

니트는 작은 편침의 운동으로 루프를 형성하므로 편침을 고속화 할 수 있어 제편속도는 직물에 비해 3~6배나 빨라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니트는 고리의 연결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촉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높으며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니트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니트의 가장 큰 특성인 신축성은 밀착하는 것에 적합한 내복류나 자유롭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필요한 스포츠 웨어에 그 특성이 가장 잘 어울린다.⁴⁾
- 2) 구조상 같은 소재의 직물에 비하여 실과 실 사이의 간격이 큰 다공성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함기성이나 보온성이 직물보다 크다.
- 3) 재료의 대부분이 양모인 것도 원인이나, 방직이나 직조로 인하여 보온성이 아주 높다.
- 4) 비교적 꼬임이 적은 방직사나 장식사 등을 사용하므로 마찰에 있어서 아주 약한 특성을 보여주며 마찰로 인하여 필링이 생겨 표면형태에 변화가 생기기 쉽고,⁵⁾ 그로 인하여 광택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5) 형성하고 있는 루프 한 개가 끊어지면 사다리모양으로 풀려나가는 현상인 런(run)이다. 니트의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용되는 방법이 코가 좌우의 다른 두 종류의 실로 엮어져 있는 트리코(tricot)와 짜짐과 짜지 않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편성물이 있다.
- 6) 니트의 가장자리 부분이 휘말리는 현상인 컬 업(curl up)으로 이로 인하여 재단과 봉제의 어려움이 있다.

7) 니트는 직물처럼 재단에 의하지 않고 편성 도중에 루프의 연결방법을 적당히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공예적, 수예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다.⁶⁾ 이러한 성형성은 재단에 의한 재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 경제적이고 생산성도 높다.

8) 신축성이 크고 부드럽기 때문에 뛰어난 드레이프성을 발휘하여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를 아름다운 맵시로 돋보이게 한다.⁷⁾

이러한 니트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기계의 발달과 메카니즘에 의한 무궁한 조직의 변화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며 코디네이션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에 단일품목으로 대처가 가능하여 실용적이고 패션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니트는 보건 위생상, 생활 활동상의 기능에 뛰어나며 개성과 취미의 반영도 가능하다. 또 능률적, 경제적, 정서적 의생활의 합리화면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III. 니트웨어 디자인의 변천

1. 시대별 배경

1) 1920년대 : 현대니트웨어의 생성기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및 자연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파생된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의상에 모던스타일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위향상과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하였으며 활동적인 보이쉬스타일이 직업 여성들 뿐만 아니라 연령을 초월한 모든 여성들에게 널리 착용되어 직선적인 보이쉬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들 신여성의 등장은 패션에 있어서 기능성과 활동성이 부여된 남성화 경향, 스포티화 경향, 캐주얼화 경향을 가져왔다.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재즈에 열광하였으며, 스포츠의 열풍과 자동차 운전 등 사회, 문화가 활성화되어 현대사회의 특징인 대중문화가 시작되었고, 특히 강대국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⁸⁾

그중 스포츠의 열풍은 패션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어, 당시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수잔 랭글러(Suzanne Lenglen)는 장 파투(Jean Patou)가 디자인한 옷을 착용하여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20년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우먼이자 패션 리더였다(그림 1). 이는 스포츠 의복이 캐주얼복으로서 일반 의복영역으로 돌아온 예로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행과 현대패션으로 변하는 여성패션에 있어 기능적인 스타일과 소재의 변화를 주

기에 충분한 요소였다.

또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처음으로 다리를 들어내고 실용적인 니트웨어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그 유행의 세계에 처음으로 니트웨어를 끌어들이는 것은 프랑스 디자이너 샤넬이었다. 샤넬은 여성들이 스포티하고 편안해지도록 세일러스커트와 남성적 분위기의 폴오버를 만들었고, 이것의 유행으로 남성복에서만 착용되었던 스웨터가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샤넬은 처음으로 기능성을 살린 니트 재킷, 니트점퍼, 누빈 코트, 주름치마를 고안하였고 저지를 정장에 사용하는⁹⁾ 등 양모니트의 여성복을 일반화시키고 니트를 정규복장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1927년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파리에 손뜨개로 만든 트롬프 뢰이유(trompe-l'oeil : 착시)를 이용한 니트디자인을 발표하였는데(그림 2), 가슴에 큰 보우를 붙인 흑백의 스웨터에 이어 목에 감는 화려한 색의 행거집, 신사용의 색깔이 있는 타이, 허리 둘레를 감는 행거집 등을 계속적으로 내놓아 성공했다. 「신사는 브론드를 좋아한다」의 저자 아니타 루스가 최초로 그녀의 고객이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얼마 후에 리츠 호텔의 레스토랑은 흑백의 니트를 입은 구미 부인들로 가득찬 정도로 유행하였다.¹⁰⁾ 그녀는 아르데코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인 패턴을 이용한 니트와 액세서리를 착용한 초현실적인 경향의 작품을 보였으며 현대 니트디자인의 선두주자로서 예술을 패션에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자들은 정장복의 캐주얼 웨어로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그 위에 니트와 승마용 바지를 즐겨 입었고¹¹⁾ 여러 색을 혼합하여 짠 웨어 아이슬(Fair Isles)짜기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였으며 이 방법의 수편 니트는 오늘날에도 널리 입혀지고 있다(그림 3).

2) 1930년대~1950년대 : 니트산업의 보급기

1929년 뉴욕의 주식시장의 대폭락과 경제공황은 사회불안과 정치적 혼란 및 실업률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복식은 다시 여성스러움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사회의 문화가 유럽을 지배하였고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예술은 더욱 대중화되었고 특히 영화의 보급은 패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시대의 패션리더로는 영화배우 그레타 가르보, 마들렌 디트리히를 들 수 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일가가 니트를 입은 모습이



〈그림 1〉 테니스 선수이자 패션 리더였던 수잔 랭글러, 1919, 『History of 20 th Centuries Fashion』



〈그림 2〉 엘자 스키아파넬리의 착시를 이용한 니트, 1927, 『A History of Hand Knitting』



〈그림 3〉 웨어 아이슬의 니트를 입고 있는 Wales 왕자, 1925, 『Fashion Source Book』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니트는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걸쳐 스포츠 의류부분에 확산되었는데, 여성들의 경우 스키아파넬리의 손으로 짠 니트 수영복이 당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남성들의 새로운 캐주얼 패션들이 등장하였는데, 골프용의 헐렁하고 짧은 니커스 바지인 플러스 포츠와 바람이 통하지 않는 소재로 허리, 손목에 고무 등으로 짠 밴드를 단 스포츠용 점퍼인 윈드 브레이커, 목깃이 달린 오픈 셔츠, 머리로부터 뒤집어써서 입을 풀오버 모두 큰 인기를 끌었다.¹²⁾

한편 1936년에는 스위스에서 파사프(passap)라는 수편기가 발명되었고, 값싸고 세탁이 쉬운 인조섬유개발로 인해 대량 생산의 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가격과 스타일의 기성복이 나왔는데 특히 1939년에는 니트웨어가 널리 입혀졌으며, 자가운전자들이 바지와 재킷 속에 스웨터를 입거나 외출복으로 트위드의 스커트나 골프바지와 함께 위에 스웨터를 입었고 이브닝 드레스와 함께 세련된 형태의 니트웨어를 입었다.¹³⁾

유럽 중심에서 떨어진 에이레의 아란 군도(Aran Islands)에서 발달한 니트가 1930년대 중반 런던 등지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아란니트는 2차대전이 끝나면서 매우 대중적인 의상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굵은 패턴의 효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여전히 애용되고 있다(그림 4).

1940년대는 세계 제2차대전의 영향으로 입혀진 밀리터리 룩으로 실용성이 강조되었고, 체스터필드코트나 레인 코트와 함께 터틀니트, 카디건이 많이 입혀졌다. 한편 미국에서도 실크 스타킹의 부족함을 대신하기 위해 발목 길이에 목양말인 바비삭스(bobby sox)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1940년 나일론(nylon)의 출현으로 실크 스타킹을 대신할 나일론 스타킹이

나왔고 나일론이 가진 내구성과 탄력성, 가벼움, 손쉬운 세탁 등은 복식 발전에 또 다른 가능성을 주었다. 편기 및 전자공업의 발달과 수편기 산업이 발달하여 고무편기가 이 시대에 출현하였으나, 조그만 가내수공업 규모의 공장에서 몇 대의 수편기를 놓고 스웨터 종류를 생산하는 정도였다.

1950년대는 전쟁 후 경제의 발달과 자본축적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져 패션의 상업화가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션에 있어서도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2차 대전 이전의 오프꾸뛰르 주도의 패션에서 적절한 가격의 편안한 캐주얼 위주의 단품을 생산하는 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미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낸 품목은 스포츠웨어와 세퍼레이트(seperate)였는데, 그 안에 받쳐입는 폴로네크의 턱받이 착용도 유행하였다. 전쟁중에 생겨난 아메리칸 룩은 오프꾸뛰르 디자이너들이 고안한 스타일과는 다른 형태로써 영화배우들의 스타일이나 뮤지컬 배우인 라나 터너(Lana Turner)에 의해 대표되는 스웨터 걸 스타일(Sweater Girl Style)이 유행하였다. 반바지, 하이 힐과 함께 착용한 바디스에 꼭 맞는 스웨터는 외설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스웨터 그 자체는 여대생의 제복이 되다시피 했다.¹⁴⁾ 이로서 육체의 곡선미를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었던 니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니트웨어가 일약 고급패션으로 발돋움했던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만 니트의 향상된 지위가 눈에 띄게 나타난 곳은 없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멋있고 세련된 니트웨어의 등장은 스포츠 활동에나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온 인기없는 때분한 옷이었던 니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이태리 니트 디자이너인 미르사(Mirsa)는 니트를 실용적



〈그림 4〉 아란니트, 1936, 『A History of Hand Knitting』



〈그림 5〉 1920년대의 심플하고 쉬크한 니트를 착용한 신여성, 1925-1929, 『Mode et Mode』



〈그림 6〉 기하학적 문양의 니트를 입은 플래퍼복장, 1927, 『Hollywood Dressed & Undressed』

인 용도로부터 패셔너블한 정장으로까지 성장시켰으며, 짙은 색상의 이튼 재킷과 밝은 색상의 슬랙스나 플리츠 스커트에 함께 입었던 미르사(Mirsa)의 니트 디자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휴일 복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¹⁵⁾ 50년대 중반부터 미쓰니, 베네딕, 스테파넬 등 본격적인 니트웨어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종류의 니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캐주얼니트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3) 1960년대 : 니트의 영 패션화, 아트화

1965년의 베트남전, 전쟁반대, 반사회운동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등장한 히피들은 물질만능주의와 전쟁에 반대하고, 경구 피임약의 대중화로 성문화가 개방화, 자유화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해 기존가치가 혼란되는 결과를 낳았다.

락 스타의 부상, 잡지, TV, 영화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급속히 발달했으며, 60년대 중반 이후 3C(Color TV, Car, Cooler)가 도래했다. 미국 아폴로 11호, 월남전, 신좌파와 히피 탄생, 1960년대에 등장한 비틀즈는 청소년들에 의해 젊은이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젊고 활달한 대중음악, 트위스트 춤과 그들의 패션이 전세계를 휩쓸었다.¹⁶⁾ 현대적 미술의상운동, 옵아트, 팝 아트, 미니멀리즘 등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미술이 젊은층 사이에서 크게 성행하였고, 그의 영향을 받아 추상적 무늬나 대담하고 강한 색의 대비, 기하학적 무늬로 특수한 효과를 주기도 했다. 패션은 보다 활동적이고 단순한 스타일로 젊은이들과 종류·하류계층에서 유행이 확산되는 등 절대적인 지배력을 잃었고 개인 취향에 따르게 되었다. 혁신적인 1960년대는 계급없는 캐주얼 웨어와 스포츠 웨어가 발달하였고 남녀가 유사한 옷차림을

하는 유니섹스 차림이 생겨났고 영국이 패션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영국에서 시작한 비트 룩(beat look)은 창백한 얼굴을 한 젊은이가 온통 검정색 일색의 가죽 슈트·외투·털실로 짠 모자·하이 터틀넥의 스웨터차림을 하였고,¹⁷⁾ 영 패션에서 보여지는 진과 니트는 더욱 타이트해지고 모든 니트는 리브 조직의 유행으로 심하게 달라붙음으로서, 당 시대뿐만 아니라 1930년대보다 힘을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1964년 발표된 영국의 메리퀸트의 미니 스커트는 부수적으로 노출된 각선미를 살리기 위한 타이츠와 부츠유행을 가져왔는데, 그 중 타이츠는 곧바로 사베의 루렉스 실의 발명으로 더욱 화려해졌으며, 무늬도 소용돌이 무늬를 비롯해서 점무늬, 꽃무늬, 담쟁이 덩굴무늬 등으로 한층 강조되었다. 그 외에도 파카, 군화, 캐주얼 니트, 군인풍의 컬러풀한 머플러등을 매치시킨 다양한 옷입기로 인해 보다 스포티하고 컬러풀한 니트웨어가 유행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에는 캐주얼 패션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여러 스타일의 옷들을 믹스 앤 매치(mix & match)시켜서 입는 것이 최고미로 간주되었고 전위적인 복식의 추구로까지 발전되었다. 의복재료로는 주로 가벼운 질감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우주 탐험을 계기로 우주룩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그와 함께 특이한 합성섬유, 유리, 금속, 인조가죽, 그리고 시스루 옷감등 재료의 다양성과 함께 대담한 디자인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맨살이 비치는 반투명직물로 만든 시스루드레스나 그물망·크로셰기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비쳐보이게 하는 의복이 나왔다.

기성복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직물산업의 기술개발과 인조섬유의 발명과 가공법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레이온(1910년), 나일론(1939), 폴리에스테(1953)섬유가 개발되어 직물공급이 원활해지고 천연섬유의 방추가공, 방염가공, 방축가공법의 발달은 다림질하지 않아도 되고 세탁과 손질이 쉽도록 의복의 기능을 더욱 높여 주었다. 비스코사, 아세테이트사, 나일론사, 아크릴사, 폴리에스테르사등의 화학사와 알파카나 모를 혼방한 여러 혼방사를 이용하여 수제품인 듯한 느낌을 주는 부드럽고 체형을 드러내는 듯한 기법의 니트가 강세를 보였고, 1968년에는 천연섬유가 유행하였다. 또한 1963년 미국인 램(I. W. Lamb)이 자동침을 사용한 횡편기를 발명하여 공업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자동침은 편직의 고속화로 전자식 무늬작성방식의 실용화를 가져왔으며 1963년 모라토(Morat)사가 전자식 자동제어를 개발한 후 각국에서 컴퓨터 니트 시대가 되었다.

한편 전후 1950년대의 핸드 니팅은 기계 니팅의 발달에 따라 위축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미술의상 작가들에 의해 예술의상의 한 영역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그것은 일상생활상의 실용기법들을 예술의 표현형태로 이용하는 운동으로서 핸드 니팅을 섬유예술의 표현매체로 확장한 것이었다. 이는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 19세기에 일어났던 「아트 앤 크راف트」운동과 비슷한 방식의 현대적 미술의상 운동이었다. 한편 미국사회의 산업화, 획일화된 가치관과 지나친 물질주의 속에서 천연섬유와 민속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등 전통적인 유산과 정신적 뿌리를 찾아보려는 세대가 나타났다.¹⁸⁾

1960년대부터 구미의 섬유예술가들이 니트 기법을 순수 예술 자료로 응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니트는 의상을 포함한 일상 생활용품 제작에 사용되어 오던 한계점을 지나 순수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려진 상태이며, 의상 디자이너는 물론 순수 섬유예술을 하는 작가들에게까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¹⁹⁾

4) 1970년~1980년대 : 현대니트웨어의 대량생산화

경제적 불황과 테러 등으로 얼룩진 냉소적인 1970년대는 1973년 중동전쟁, 이듬해인 오일쇼크,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며, 비행기 납치, 폭탄 테러등의 각종 테러가 빈번하고 정치적 대립은 심화되었다. 1970년대에 영향을 미친 두가지 중요한 시대사조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여성운동의 확대이다. 1975년 호라 애슐러(Haura Ashley)가 내놓은 밀크 메이드 룩, 전원풍의 의상인 두툼한 홈스폰이나 트위드

의 재킷, 스커트, 두껍고 거칠게 짠 니트웨어, 두툼한 타이즈, 넓게 퍼지는 페티코트 등이 하이패션에 채택되었다.²⁰⁾ 한편 여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었고 직업을 가진 캐리어우먼들이 더욱 많이 생겨났다. 이들은 멋을 내기 위해 투자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여성들의 활동복으로는 대부분 남성복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니섹스 스타일을 지속시켰고 남녀가 같은 무늬·같은 색상의 스웨터를 똑같이 입는 것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 유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것 중의 하나는 스포츠였다. 운동선수들은 높은 인기와 명성을 누렸고 그들의 의상이나 행동은 대중들에게 광적으로 추종되었다. 그들이 착용한 노출된 운동복은 대중에게 신체노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의 영패션은 핑크와 팝의 영향으로 비구조적이고 일상적이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미래지향형 패션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복장의 혁명으로 진 차림이 계속 붐을 이루었고, 의복 또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의복으로 저렴한 가격의 의복을 층층이 겹쳐 입어 색상이나 소재 등의 다양한 효과로 겹쳐입는 방법에 따라 각자의 개성이 표현되는 레이어드 룩과 혈렁한 이국풍의 빅 룩이 유행하였다. 특히 심지나 안감이 없는 비구조적이며 캐주얼한 복식형태가 주류를 이루어 캐주얼화가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스웨터, 진, 그리고 티셔츠가 인기를 얻었다.

1970년대의 전반부는 복고풍의 로맨티시즘을 표현한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였고, 후반부는 레이어드 룩이 계속 성행하면서 전원풍의 페전트 룩, 민속풍의 히피 룩, 밀리터리 룩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스포츠 웨어의 막강한 성장에 힘입어 신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점차적인 소멸과 더욱 편안한 의상에 대한 추구가 가속화되어 니트웨어는 무늬를 넣은 스웨터, 긴 카디건, 리브조직의 팬츠, 니트모자, 니트스커프 등 다양한 아이템과 디자인으로 블루진과 더불어 대중화되었다.

소니아 리켈(Sonia Rykiel), 미소니(Missoni), 재클린 재프슨(Jacquelin Jacobson)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대중화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의 미소니는 자카드, 라인, 패치워크 등으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굳혀 단시간에 이탈리아 니트웨어의 심볼로서 전세계에 부각되었다.

1970년대는 니트가 거의 모든 종류에 이용될 만큼 인기가 있어 코트에 이르기까지 응용되었고, 니트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산업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컴퓨터 니트 시대가 되

었다. 1975년의 이트마전에서 서독의 스티븐스가 횡편기에 의한 이 타입의 「Anv」를 발표하였다.

1980년대는 1970년대를 지배했던 경제적인 침체와 사회적 긴장, 대중의 불만 등에 대한 반동의 시대였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전문적이고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갖게 됨에 따라 전문직 여성들은 1980년대 패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생활의 상승지향과 유희와 풍요로움이 전면에 내세워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캐주얼화 경향으로부터 귀족 취미의 고급 정장차림으로 전개되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에어로빅, 헬스 등의 운동이 더욱 유행하였고 쾌적성, 활동성,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린 스포츠 웨어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여가복으로의 개념이 강해져 반드시 운동복 차림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여행시나 야외에 놀러갈 때 입는 편안한 차림으로 스포츠 웨어를 많이 입게 되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 양식을 혼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지구촌 문화를 급속히 교류, 확대하게 함으로써 생겨난 다른 민족 문화에 대한 동경과 이해는 포클로어와 에스닉이 패션에 도입되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1984년이래 성 혁명으로 앤드로지너스 룩이 화제가 되어 나타났으며, 캐주얼 웨어에서 시작된 유니섹스 모드는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때와 장소의 구별없이 착용하게 된 바지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다. 이 세이 미야게와 요지 아마모토, 레이 카와쿠보 등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비구축적인 디자인의 재패니즈 룩이 1980년대 초반에 유행되었으며, 드레이프성이 좋은 편성물들이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에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소득 수준과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합성섬유에 불만을 느끼게 되고 다시 천연소재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신소재의 등장으로 소재의 사용이 다양화되었다.

니트에 대한 선호는 급증하여 가장 여성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인식 속에 포말한 정장과 활동적인 팬츠까지 다양하게 인기를 더하였고 민속풍의 자카드 무늬를 응용하거나 직물과 혼용되기도 하여 1980년대는 니트의 기술혁신 및 문양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5) 1990년대 : 니트웨어의 패션화

1990년대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패션에도 부각되면서 리사이클 패션이 나타났고 이컬러지 테마가 1980년대에 이어 더욱 확산되었다. 생태학이라는 뜻의 이컬

러지는 오염되어 가는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이컬러지룩은 루즈 룩의 자연스러운 편안함과 착용감의 표현으로 새로운 볼륨감의 스타일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색상에 있어서도 바다, 산림, 모래등 자연을 상징하는 색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천연섬유로 만든 니트웨어들은 더욱 각광을 받았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며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인해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에스닉 스타일, 그랜지 스타일, 네오 힙피 스타일, 네오 클래식 스타일등이 1990년대에 나타났으며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의 니트웨어는 새로운 소재 개발과 함께 컴퓨터 전자 등 니트 기계의 출현에 의해 다양한 조직이 정교화되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개성있고 다양한 스타일로 입혀졌으며 니트의 패션화가 이루어졌다.

소득과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정착에 다른 이지웨어 붐과 함께 편안하고 활동성있는 니트웨어가 부각되었다. 리조트웨어가 급성장하여 스포츠 니트웨어가 새로운 니트웨어로 정착되었고, 신축성있고 간편한 신소재 니트웨어들이 더욱 각광 받고 있다.

니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각 업체들의 니트 비중이 더욱 높아져 40, 50대의 한정된 부인 층에서 20, 30대의 젊은 층까지 폭넓게 조정되었으며 최근 업체에서는 니트웨어를 기존의 세트 판매위주의 생산방식 체제에서 단품위주의 니트웨어 생산체제로 바꾸어 코디네이션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10대 층의 니트웨어 업체의 주요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한편류의 니트웨어는 이지웨어 선물이 불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부터 패션에 나타나는 니트웨어는 형태와 기법면에서의 독창성은 놀랄만한 것이며 그 조형적 가치는 예술성으로 인정을 받을 만 하다.²¹⁾ 특히 핸드티링은 복고주의 패션 경향속에서 섬유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양식으로 널리 채택되었으며, 생활의상의 영역을 넘어 순수예술 분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의 1990년대의 니트웨어의 기법을 살펴보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창조적으로 표현되어 니트 고유의 특성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 조직의 변화, 표현양식의 다양화 등에 따라 풍부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미적 개념을 표출시키는 표현매



〈그림 7〉 1920년대의 배색처리된 튜닉형 니트차림의 여성, 1925-1929, 『Mode et Mode』



〈그림 8〉 1930년대의 스트라이프 배색의 포인트를 준 니트차림의 여성, 1930-1939, 『Mode et Mode』



〈그림 9〉 1930년대의 대표적 디테일인 리본과 벨트를 마무리한 엘레강스한 니트 상·하, 1930-1939, 『Mode et Mode』

체로서의 능력을 자유로이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적 의상형태의 표면 위에 예술적 주제 및 이미지를 정교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2 니트웨어의 디자인 변천과정

1920년대부터 1980년대의 현대니트웨어는 『Mode et Mode』지에 실렸던 각 시대별 여성용 니트웨어의 실제모델 사진을 중심으로, 1990년대의 니트웨어는 『Collections』지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조사하여, 각 시대별 니트웨어의 디자인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20년대 : 스포티, 심플, 모던

1920년대는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패션에 있어서는 기능성과 활동성이 부여되어 남성화 경향과 스포티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니트웨어에서는 스포츠의 열풍에 힘입어 스포티감각과 유니섹스의 이미지를 모던하고 심플한 박시(boxy) 라인의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다.

샤넬의 영향을 받아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직선적인 라인을 살린 심플한 폴오버와 가디건에 잔주름이나 주름번형의 무릎기장 스커트의 매취로 보다 쉬크한 분위기의 니트웨어가 유행하였으며(그림 5), 골프복이나 테니스복 등 스포츠를 하기 위한 차림에는 니트웨어가 남녀 모두 많이 입혀졌는데, 주로 남성적인 기본 가디건이나 V 네크의 기하학적인 패턴이 들어간 폴오버가 많이 입혀졌다(그림 6). 단색의 기본형 외에도 많이 보여지는 패턴으로는 다양한 줄무늬, 기하학적

인 패턴이 있었으며, 디자인 디테일로는 보다 무늬에 약간의 배색을 살리거나 파이핑을 Bi-Color배색함으로써 포인트를 두기도 하였다(그림 7).

1927년 엘자 스킨아파렐리는 착시를 이용한 초현실적인 경향의 니트웨어를 유행시켰으며, 남자들은 여러 색을 혼합하여 짠 웨어 아이슬(Fair Isle)짜기의 니트웨어가 유행하였다.

소재는 주로 중번수의 모소재를 사용하였고 전반적으로 플레인한 조직으로서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있다.

2) 1930년대~1950년대 : 페미닌·디테일의 다양함

1930년대의 니트웨어는 1920년대의 심플하고 직선적인 디자인에서 보다 페미닌한 방향으로 나아가 조직과 디테일이 보다 다양해졌고, 실루엣도 여성의 몸매를 더욱 잘 나타내도록 몸에 꼭 끼는 스타일이 많았다. 따라서 허리의 리브(rib)단이 넓은 것과 허리의 라인을 살린 니트웨어가 특징이며 조직감을 살린 정장형의 엘레강스한 니트 정장으로 엘레강스함을 표현했다.

니트웨어의 아이템의 종류도 많아지고, 1920년대의 기본형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조직과 디테일을 살린 몸에 피트되는 폴오버나 블라우스 형태의 가디건, 재킷, 드레스, 슬림한 스커트 등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텍스처가 중요해져 터크, 케이블, 리브, 각종 장식적인 수편무늬 등의 조직 외에도 체크나 규칙적인 꽃무늬, 줄무늬 패턴을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사선의 바이어스 조직이 많았다. 조직을 중요시하여 한 아이템에 두 개 이상의 다른 조직을 살린 정교한 디자인이 선보였다.



〈그림 10〉 1940년대의 밀리터리룩의 개념을 살린 카디건, 1940-1959, 『Mode et Mode』



〈그림 11〉 1940년대의 강한 줄무늬배색의 카디건, 1940-1959, 『Mode et Mode』



〈그림 12〉 1950년대의 칼라가 강조된 리브조직의 심플한 니트웨어, 1940-1959, 『Mode et Mode』

디자인은 페미닌한 자수, 리본, 셔링 등 여성스럽고 섬세한 디테일이 많이 나타났으며 니트웨어의 우븐화로 특히 디테일이 많아져서 1920년대의 라운드, 스퀘어 네크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페미닌한 칼라의 디테일과 소매의 터크, 셔링, 가슴 윗부분의 단추 장식이 디자인 포인트, 언밸런스 여밈처리, 니트의 제 소재로 된 벨트로서 허리를 강조하는 등 현대 니트웨어 중 가장 많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8, 9).

소재는 인조섬유의 개발로서 좀 더 다양한 표면감이 느껴지는 팬시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컬러는 보다 비비드(vivid)하고 덜(dull)한 컬러로 전개되었으며 옐로우, 레드, 블루, 화이트~블루, 오렌지~브라운, 그린 등 컬러풀하게 보여졌다.

1940년대의 니트웨어는 밀리터리의 경향으로 점점 심플해지는 경향을 보였고 실루엣도 1930년대보다는 약간 여유있어졌고 기장도 다소 길어졌으나, 아직도 보디 콘서스의 실루엣을 유지하였으며 소매산에 터크 처리하여 어깨를 강조하였다. 파임이 적은 라운드 네크나 셔츠 칼라, 작은 리본 디테일의 폴오버, 베스트 등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부분 배색의 조직이나 조직에서 오는 줄무늬나 사선, 단순한 민속조 패턴 등으로 변화를 주고 있으며, 강한 컬러의 대비, 다양한 포켓의 디테일로 강조하기도 하였다(그림 10, 11).

아크릴 니트의 대중화와 더불어 모나 모헤어, 앙고라 등 헤어리한 소재 등 점점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였고 컬러는 보다 밝아지고 파스텔 계열이 많아져 핑크, 옐로우, 그린, 블루~네이비, 레드 등을 사용하였고 3도의 멀티 컬러를 이용한 보다 대담한 배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의 니트웨어는 1940년대보다 여유있고 슬림해졌으며 여성미와 캐주얼성을 살린 코디네이트용으로 널리 입혀

졌고 한결 고급스러워지고 세련되어졌다. 라글랑 소매의 폴오버나 슬림하고 중간 기장의 폴오버와 카디건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은 플레인과 케이블, 리브조직 등의 기본조직을 중심으로 심플하게 전개되었고 부분적으로 자수나 컬러 배색으로 변화를 주었다. 디자인은 보다 세련되어졌고 심플해진 가운데 자수, 비딩, 스티치, 작고 섬세한 꽃수, 정교한 기계자수 등의 디테일 외에도 스위트 하트 네크라인, 오블롱 칼라, 오프 네크 라인, 윙 칼라, 카디건 네크라인, 크로스 머플러 칼라, 스카프 칼라 등의 젊고 감각적인 혹은 캐주얼한 칼라가 많이 보여지고 있었다(그림 12). 또 앞단을 넓게 한 카디건 스웨터나 스포티한 컬러풀한 터틀 외에도 뮤지컬 배우인 라나 터너에 의해 유행한 스웨터 걸 스타일인 바디스에 꼭 맞는 트윈 스웨터가 유행하였다(그림 13).

면, 모 혼방소재를 중심으로 플레인 조직이나 리브 조직 등 기본조직을 주로 하였으며, 파스텔 계열을 중심으로 라이트 블루, 라이트 핑크, 옐로우, 라이트 그레이, 베이지, 오렌지, 레드 등의 자연스러운 컬러 매치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3) 1960년대 : Young화, 캐주얼화

1960년대의 니트웨어는 캐주얼 웨어, 스포츠 웨어의 발달과, 유니섹스의 영향을 받아 진과 함께 더욱 젊은 층에게 선호되었고 인조섬유의 발명과 가공법의 발달과 편직 기계의 자동화로 더욱 발달하였다. 활동적이고 단순한 스타일로 자연스런 바디스를 따라 약간의 여유감을 준 슬림한 실루엣의 니트웨어로 하이 터틀네크의 폴오버 및 박스 형태의 길이가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어진 카디건, 폴오버, 그리고 드롭



〈그림 13〉 1950년대의 유행한 트윈 스웨터, 1940-1959, 『Mode et Mode』



〈그림 14〉 1960년대의 영웅에게 선호되었던 스포티한 니트웨어, 1960-1979, 『Mode et Mode』



〈그림 15〉 크로셰기법의 니트원피스, 1968, 『Fashion in Film』



〈그림 16〉 1970년대의 에스닉하고 그래닉 룩의 니트웨어,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그림 17〉 V-넥의 유니섹스룩 니트웨어, 1973, 『Fashion Source Book』



〈그림 18〉 1980년대에 유행했던 복합 연속문양의 니트재킷, 1975-1984 『Reminiscence Style』

숄더의 박스형으로 새롭게 코디네이트해서 입혀진 베스트, 원피스 등이 컬러플한 타이츠와 니트 머플러, 털실로 짠 모자와 가방 등의 소품과 함께 토틀로 코디네이트해서 널리 입혀졌다. 또한 패션의 스포츠화의 영향으로 대담한 스포티한 탱크 톱과 나시 원피스가 출현했으며, 패턴도 기하학 패턴, 옵티컬, 줄무늬 또는 멀티의 컬러플한 줄무늬 등이 크게 인기를 끌었으며, 한 스타일에 여러 컬러로 배색하는 기법으로 연출하기도 하였다(그림 14).

조직은 캐주얼해보이는 케이블조직, 바디스에 꼭 달라붙는 굵은 리브, 신체의 일부를 비쳐보이게 하는 크로셰(Crochet)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그림 15), 그동안 기계 니팅의 위축에 따라 위축되었던 핸드니팅이 구미의 섬유 예술가

들에 의해 미술의상의 한 영역으로서 발달하기도 하였다.

니트 소재로는 비스코스사, 아세테이트사, 나일론사, 폴리 에스테르사 등의 화학사와 알파카나 모를 혼방한 여러 혼방사 외에도 루렉스의 혼방으로도 화려해지기도 하였다.

컬러로는 브라이트 톤의 옐로우, 핑크, 오렌지, 블루, 바이올렛, 아이보리, 레드 등의 컬러플하고 서로 스포티하게 배색하거나 소품과 서로 매치시켜 생동감있게 입혀졌다.

4) 1970~1980년대 : 유니섹스화, 이컬러지풍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여성운동이 일어났던 1970년대는 히피풍의 에스닉하고 그래닉 룩(granny look)의 니트 디자인(그림 16)과 전원풍의 두껍고 거칠게 짠 듯한 니트웨어



〈그림 19〉 앙고라 소재의 대담한 패턴, 돌만 슬리브의 이브닝 니트웨어, 1983, 「New York Fashion」



〈그림 20〉 1980년대의 캐주얼하게 토털 코디네이트한 니트웨어, 1975-1984, 「Reminiscence Style」



〈그림 21〉 Herve Legar, 신축성있는 신소재의 스포티한 니트웨어, 1994 A/W, 「Collections」

가 유행하였고 여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남·녀가 같은 무늬, 같은 색상의 스웨터를 입는 유니섹스 룩의 니트웨어가 유행하였다(그림 17).

1970년대에 걸친 레이어드 룩의 지속적인 유행에 힘입어 루즈하고 빅 룩의 박시한 실루엣의 니트웨어가 선보였는데 남성복에서 유래된 V-넥의 니트 베스트와 니트 카디건이 특히 많이 입혀졌으며, 줄무늬, 아가칠 패턴, 기하학적이고 규칙적인 남성적인 패턴 등이 많이 사용되어졌다. 또한 스포츠웨어의 본격적인 수요에 힘입어 니트웨어의 패턴에서도 마린 룩의 줄무늬 패턴과 테니스 룩의 디자인이 다시 선호되었으며, 에스닉한 분위기의 페이즐리, 꽃, 추상무늬, 구상무늬, 복합무늬, 연속무늬, 민속풍의 펀치카 무늬 등 다양한 패턴들이 개발되었으며, 패턴 온 패턴 등 패턴의 복합화와 멀티화의 형식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났다(그림 18).

유니섹스화의 영향은 니트웨어의 패턴에도 반영되어 패턴이 많이 커졌고, 우븐과의 토털 개념의 레이어드 룩으로서 중요해진 니트웨어의 소재로는 멜란지사를 사용한 트위드 타입이나 셰틀랜드가 유행되었다. 컬러도 내추럴 무드의 베이지, 카키, 네이비, 그레이, 아이보리 등이 강세를 보였고 배색 컬러로는 레드, 그린, 블루 등의 강한 색이 사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니트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니트가 가장 여성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인식하에 포멀한 정장형의 니트웨어부터 캐주얼한 단품까지 인기를 더하였고, 니트의 기술혁신과 문양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전반적으로 돌만 슬리브나 어깨가 강조된 루즈한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고 포클로어, 에스닉풍의 문양이나 기법의 니트디자인이 강세를 이루었다.

에스닉한 줄무늬, 민속조의 자카드 문양, 에스닉한 꽃 패

턴이나 동물문양, 웨어 아이슬 문양, 또는 기하학 패턴과 꽃 등의 복합문양 등 보다 세분화되어서 나타났고 특히 면분할하여 강하게 배색하는 등의 미술사조에 따른 아트적인 분위기의 인타시어 문양으로 강렬하고 성숙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그림 19). 그 외에도 패치워크, 자수 모티브나 직물과의 혼용등의 혼합기법을 살리기도 하였고 케이블, 스카시, 후리, 체크 등의 심플한 조직 자카드나 소재를 혼방 또는 합사하여 효과를 낸 소재를 이용해 보다 고급스럽게 표현되었다(그림 20).

또한 1980년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니트웨어의 종류류가 많아져서 니트로 된 코트, 재킷, 망토 등의 다양한 아이템이 널리 입혀졌고, 플로버류의 경우에는 오프터를 니트의 훌륭한 플로버를 겹옷개념으로 입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이들은 니트로 된 모자, 머플러, 장갑 등의 니트로 된 소품과 함께 토털 코디네이트되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니트소재로는 자연소재의 비중이 커져 겨울에는 특히 양고라나 모헤어와 같은 동물의 털이 선호되었고 여름에는 면, 마, 실크 등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²²⁾ 그 외에도 넵, 슬러브, 부플레, 셔닐사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시대에는 소재의 다양한 개발과 함께 멀티 컬러안이나 2~3종의 원사를 합사하거나 혼합하여 효과를 낸 소재가 두드러지게 많았다.²³⁾

컬러는 베이지, 브라운, 와인, 화이트, 카키, 머스타드 등보다 내추럴한 감각의 컬러와 도시적인 그레이와 악센트 컬러로 레드, 바이올렛 컬러가 유행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대담한 배색효과로 핑크, 블루, 오렌지 등의 비비드 컬러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기도 하였다.



〈그림 22〉 Missoni, 자연을 모티브로 섬세하게 표현된 자카드패턴, 1991 S/S, 「Collections」



〈그림 23〉 Les Copains, 예술사조에 의한 문양의 모던한 니트웨어, 1997 S/S, 「Collections」



〈그림 24〉 Ysumori Chisato, 민속풍이 느껴지는 크로셰 작업의 니트웨어, 1991 S/S, 「Collections」

5) 1990년대 : 토탈화, 복합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1990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은 더욱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니트웨어에 대한 인식변화와 니트 생산의 전자동화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니트웨어의 대표적인 실루엣을 살펴보면 신축성있는 신소재의 개발로 더욱 유행하게 된 스포츠 룩(그림 21)과 미니멀리즘에 의한 영향으로 바디에 피트되는 라인과 지속되는 이퀄러지의 영향을 받은 내추럴한 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나아가서 우븐처럼 재단되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컴퓨터기계의 발달로 인한 자동성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고풍의 영향으로 클래식한 기본 니트아이템은 지속적으로 입혀지는 가운데, 에이지의 세분화 및 패션무드의 세분화에 따른 디자인의 복합화 경향을 띄고 있다. 즉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기술적인 것과 수공예적인 니팅기법이 각각 강세를 이루는가 하면 미니멀 또는 지나친 장식적인 요소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개성있는 스타일이 보여지고 있다. 이는 소재의 다양한 믹스와 개발, 그리고 창조적인 디자인 영감과 생산기술의 전자동화에 힘입어 더욱 복합화되어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져, 더욱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경지에 까지 이르렀다.

다양한 조직을 살린 디자인 외에도 기하학적 무늬, 민속조의 문양, 동물이나 꽃 등을 주제로 하는 자연문양(그림 22), 예술사조에 따른 다양한 문양 등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그림 23).

또한 1990년대부터 패션에 나타나는 니트웨어는 형태와

기법면에서의 독창성은 놀랄만한 것이며 그 조형적 가치는 예술성으로 인정을 받을만 하다. 크로셰, 핸드니트, 마크라메, 너팅, 슬레싱, 엮기, 자수, 프린트, 킬팅, 패치워크, 콜라쥬, 아플리케, 비딩 등 수공예적인 기법을 살려 보다 니트의 표현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각기 다양한 변화와 테크닉의 복합성으로 더욱 독특한 미적 효과를 내고 있다.

그 중 크로셰(Crochet)기법은 기계로는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텍스처와 더불어 제한없는 폭과 길이로 연결되는 부조 및 입체의 자유로운 형태의 표현력을 갖는다.²⁴⁾(그림 24)는 Ysumori Chisato의 작품으로 크로셰 작업에 의해 민속풍을 느끼게 하는 니트웨어이다.

마크라메(Macrame)기법도 1960년대 향토적이고 민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의 증대화, 실로 잔 직조물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다시 주목받았는데, 구슬이나 비즈 등의 장식물을 끼워서 짜는 방법이나 실 이외 가죽끈이나 기는 로프 등 굵기의 제한이 없으며 네팅 및 너팅등과 함께 프리미티브한 표현을 하는데 이용된다(그림 25).

또한 최근들어 다시 각광받는 핸드니트는 기계니트에서 요구되는 획일적인 재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색상의 실과 굵기가 다른 재료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기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장식물의 부착이 용이하다. 소품에서부터 크기가 큰 작품까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고 제작 과정에서 유연성으로 창의적인 표현의 시도가 가능하며, 또한 장소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제작할 수가 있어²⁵⁾ 이를 이용한 수공예적 기법이 많이 보여진다.

〈그림 26〉은 Ernestina Cerini가 발표한 작품으로 니팅과 핸



〈그림 25〉 Marina Spadafora, 프리미티브한 이미지의 마크라메 기법의 니트웨어, 1991 S/S, 「Collections」



〈그림 26〉 Ernestina Cerni, 복합기법에 의해 독특하게 표현된 니트웨어, 1993 A/W, 「Collections」



〈그림 27〉 Janet Lipkin, 아플리케 등으로 표현한 Bird Coat, 1972, 「Art to Wear」

드니팅의 복합기법으로 독특한 텍스처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니팅위에 비딩을 하거나, 형상이나 형상의 요소를 잘라내어 붙이는 기법인 꼴라쥬를 장식하거나, 니팅위에 다양한 패치워크를 하거나, 퀴팅, 솔장식, 엮기, 슬래싱 등의 다양한 수공예적인 기법이 재료와 기술의 폭넓은 도입에 의해 독특하게 표현되어진다.

소재도 천연소재의 선호와 함께 점점 고급화되고 복합화되어 하이테크한 소재가 많이 응용되었으며, 다양한 가공에 의한 텍스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니트웨어에 사용된 주된 컬러로는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그레이, 블랙, 와인, 카키, 네이비 등의 베이직 컬러와 레드, 그린, 블루, 핑크, 옐로우 등의 악센트 컬러가 많이 사용되었다.

IV. 현대니트웨어의 특성

1. 기능성 추구

1920년대에 나타난 기능미의 출현 배경에는 스포츠의 대중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미국의 기능주의와 현대 예술의 영향이 있었다. 자동차 운전과 골프,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에 적당한 따뜻하고 편안한 니트웨어는 부유한 계층의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1920년대 미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들은 바로 스포츠 우먼이었다. 이러한 스포츠 여성들의 영향으로 패션은 더 자유롭고 기능적으로 변했다. 짧은 스커트, 소매없는 브라우스, 그리고 맨 다리의 노출 등은 헬렌 윌스의 경기에서 필수적이었다.

1920년 유명한 잠수선수인 안네 켈러만(Anne Kellerman)이 선보인 니트로 만든 원피스 수영복 및 테니스, 골프에 있어서도 스포츠웨어로서 기능성을 살린 니트웨어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플오버 스웨터와 카디건, 베스트형의 스웨터가 선보였다.

샤넬은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인 저지를 사용해서 비치웨어를 만들었고, 여성들의 육체를 해방시키고 스피드한 생활 양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30년대의 공황기간 동안 미국의 뉴 딜 정책의 사회프로그램의 일환인 지역사회가 계획한 레크레이션과 교외활동으로서 활동적인 스포츠가 더욱 보급되었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스포츠 웨어가 일상복에 일반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셔츠, 바지, 스웨터 등이 함께 유행하였고 전통적 삶의 거부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의복을 원했던 이들은 기능적인 의복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는 후에 아메리칸 스포츠 캐주얼웨어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활동성은 20세기 전체에 흐르는 캐주얼화의 큰 조류에서 나타난다. Karylne Anspach는 캐주얼 스타일을 첫째, 비형식성을 통한 자유로움, 둘째, 일할 때와 여가 시에 입을 수 있는 융통성, 셋째, 건강과 내구성 등 모든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실용적, 기능적인 특징으로 설명하였다.²⁶⁾ 최근에는 스포츠와 레저의 대중화로 스포츠웨어가 인기있는 아이템이 되었고, 레저스포츠 웨어의 소재로 기능성을 갖춘 소재가 등장하는 등 의복소재에 있어서 고감성, 고기능성, 고감도의 성능을 갖춘 하이테크 신소재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는데, 최근에는 신축성 의류소재인 라이크라와 스판덱스를 사용한 신체밀착성 의류가 선호되면서 신축성이 좋은 니트소재가 유행하고

<표 1> 시대별 현대니트웨어의 변천비교

| 연대 | 항목 | 사회·문화적배경 | 이미지 | 실루엣 | 디자인 | 문 양 | 소 재 | 색 채 |
|-------------|---|----------|--|--------------------------|---|---|--|--|
| 1920년대 | 기능주의 신여성등장 Jazz 스포츠 | | 스포티 심 플 모 던 유니섹스 | 직선적 라인 튜닉형 | 모던 유니섹스 스포티감각 | 줄무늬 기하학 무늬 웨어 아이슬 초현실주의 | 모사 면사 | 단색 Bi-color |
| 1930~1950년대 | 경제공황 영화보급 제2차 세계대전 기성복화 | | 페미닌 밀리터리 소프트 심플 | 피트 슬림 어깨 강조 라글랑 | 페미닌 스웨터컬 리본/컬러/벨트/ 단추/포켓등의 디테일 아란니트 | 체크, 멀티줄무늬 사선조직 단순한 민속풍의 패턴 | 인조섬유 아크릴사 팬시효과 헤어리사 면·모혼방 | 비비드/덜톤 대담한 배색 패스텔계열 |
| 1960년대 | 월남전 신좌파/히피 비틀즈/락스타 팝아트 옵아트 아폴로 11호 | | 유니섹스 Young化 캐주얼 밀리터리 스포티 | 슬림한직선형 내추럴 | 토털코디네이션 리브 터틀류 크로셰 핸드니팅 | 기하학 무늬 옵티컬 줄무늬/ 멀티컬러 줄무늬 | 루렉스사 각종화학사 알파카 모혼방 | 브라이트톤 컬러플배색 블랙 |
| 1970~1980년대 | 여성운동 오일쇼크 경제적불황 자연으로 돌아 가 자는 운동 | | 이컬러지풍 레이어드룩 유니섹스 캐주얼 앤드로지너스 룩 재패니즈룩 | 빅(big) 박시 루즈 | 컴퓨터화 유니섹스 패션트룩 히피룩 밀리터리룩 인타샤 패치워크 | 아가힐 자카드화 에스닉/꽃/민속 조/기하학/추상 무늬/동물문양 pop | 멜란지사 트위드사 세틀랜드사 넵/슬러브/부글 레/헤어리등 팬 시안 모/면/마/ 실크 | 내추럴무드의 베 이지, 카키, 그레이 악센트컬러: 레드/ 그린/블루/핑크/ 오렌지등 비비드 컬러 |
| 1990년대 | 포스트 모더니즘 리사이클 | | 이컬러지룩 스포츠룩 에스닉 그런지 네오 히피 네오 클래식 | 피트 내추럴 | 핸드니팅 복합화 | 다양한 조직 자카드 기하학/민속조/ 자연문양 예술운 동에 따른 다양 한 무늬 수공예 기법 | 복합소재/하이 테크소재 모·면, 자연소재 라이크라 | 도회적인 베이직 컬러와 악센트컬 러: 레드/그린/핑 크/옐로우의 믹스 & 매취 |

있다. 이러한 니트의류의 붐은 앞으로 계속되어져 향후 21세
기의 의류소재로 니트소재가 직물이상으로 많이 사용될 것
으로 예측된다.

2 유니섹스화

여성복의 현대화 과정에서의 특징중의 하나가 의복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고 극단적인 계급차 및 성차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것인데,²⁷⁾ 성 역할이 유사해지면서 남녀 의
복이 유사해졌으며 많은 옷이 구별없이 착용하게 되었다. 여
성해방운동과 더불어 성차별을 금지시키는 법의 제정 등 사
회내 성에 대한 고정관점이 변화되면서 바지, 셔츠, 니트, 재
킷 등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⁸⁾ 특히 터틀넥나 V-
넥등의 풀오버는 젠더리스를 추구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스키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와 관련되어 활동성이 중요한
의복들이 전통적으로 성별에 다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
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20년대 샤넬은 남성적인 스
타일이나 세부요소들을 차용해서 블래지어(brazer) 코트식의
재킷재단, 남성용 풀오버로부터 따온 스웨터류 그리고 바지
까지도 차용되었다. 여성들은 남성복의 단순함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 즐기는 여유있는 재단과 편안함을 좋아하였다.²⁹⁾
또한 이 시대의 골프, 테니스, 수영 등 스포츠를 위한 니트웨
어는 남녀 차별이 없었는데, 다이아갈레드(Diaghilev)의 발레곡으
로 「푸른 열차」(1924)에 나오는 의상디자인을 통해 니트웨어
를 부각시켰는데, 이는 장 곡도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
로서 대부분의 남녀 출연자들은 핸드 니팅의 유니섹스 수영
복을 착용하였다.³⁰⁾

1960년대 이후 성적 역할의 붕괴는 패션에 있어서 로맨틱
한 스타일을 거부하고 성적 구분이 안 되는 유니섹스룩의

시대가 열려 여성의 팬츠가 널리 착용되었고 남녀 모두 슬랙스, 스웨터, 긴 머리를 해서 남녀를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당시 유니섹스 룩을 보다 전위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에서 제시했던 Ludi Gernreich은 성적 특성이 극도로 배제된 남녀 토폴리스 수영복을 발표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여성복의 남성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다가 60년대에 남녀 복식 모두 이성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뚜렷한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으며, 젊은이들은 패션에 대한 흥미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잃었다. 트렌치 코트, 파카, 가죽 재킷, 니트 직물과 스웨터 등은 진바지와 더불어 남녀 모두를 위한 패션으로 수용되었다.

신세대의 복식에 있어 캐주얼 웨어에 대한 '입기 편한 옷'이라는 기존의 개념과 더불어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옷'으로 바뀌었다. 젊은이들의 성에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의 추구는 앤드로지너스적인 복식의 착용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했고, 현대 니트웨어에 대한 영층의 선호에 따라 더욱 자유로운 감성 추구의 수단으로 유니섹스화가 활성화되었다.

3. 고부가가치화

니트는 선진국형 의복으로서 국민소득 1만불이 넘는 시대에 적합한 아이템이다 소비자의 패션 감각도 높아져 심플하면서도 세련미가 넘치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니트는 적합한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내장한 전자동 편직기의 발달과 소재의 개발에 의해 특수질감의 소재와 조직의 무한한 변화에 따라 인체의 실루엣이 극도로 표현되는 미적 예술성이 더해져 고부가가치의 제품이 제작되고 있다. 현대 패션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프레타포르테의 디자이너들 역시 최근에 발표한 작품들 속에서 다양한 니트웨어들을 내놓고 있다.

패션디자이너가 창조적인 미적 가치를 확대하고 대중화하여 생활의 질을 예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산업기술과 생활예술이라는 두가지 속성을 결합하여 제품으로 생산하는 일련의 산업적인 결과임을 볼 때, 디자이너의 미적 조형감각으로 다양한 조직과 질감을 개발하여 개성과 독창성을 부여하는 니트는 패션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잡음을 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기법에 있어서 점차 단순한 기본조직 외에 그것에 덧붙여 아프리케, 비딩, 킬링 등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복합화된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핸드 메이드의 수공예

적 기법으로 직물류에서 표현될 수 없는 독특한 개성과 감각을 자유자재로 보여주고 있다.

니트웨어의 경향이 종래의 인너 웨어에만 국한하던 것이 이태리의 미소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스포츠 웨어를 비롯하여 패션성이 큰 여성용 정장 아우터 웨어까지 이용됨으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니트류의 소비량도 증가한다고 한다. 선진국의 니트류 제조기술은 원사부분에서는 다품종소량생산에 알맞는 편사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팬시안, 복합사 그리고 기능성을 부여한 합연사의 개발이 활발하며 편직기계부문은 고속화, 細게이지화를 지향하면서 고부가가치화와 무늬형식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고부가가치 있는 니트류의 조직개발이 절실하며, 이는 디자인의 다양화와 함께 예술로까지 승화되고 있어 현대니트웨어는 점차 일상복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4. 기술 집약화

1936년 스위스에서는 파사프라는 수편기가 발명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로 합성섬유의 출현과 편기 및 공업의 발달에 따른 고무 편기가 출현하였고, 곧이어 1963년 미국인 램(I. W. Lamb)이 자동침을 사용한 횡편기를 공업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때부터 자동침은 편기의 고속화에 많은 공적을 세웠으며 1963년 서독의 모라토(Morat)사가 전자식 자동 제어를 개발한 후 컴퓨터시대가 되었다.³¹⁾ 1960년대에는 전자식의 무늬 작성의 실용화 등 각종 편기들이 개발되어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에 의한 기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무늬 및 편성으로 현재 니트웨어의 다양화, 고급화가 이루어졌다.³²⁾

현대 과학 기술의 개가로 진보된 기계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계편직 기법은 신속하고 정교한 제작과정으로 인해 거대한 크기, 정밀하고 섬세한 표현, 반복적인 패턴, 도식화된 문양, 복잡한 디자인 등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라는 최첨단 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신속한 편직속도, 정확한 산출과 동작에 의해 예술적 표현력을 강화 시킴으로써 폭넓은 표현 가능성을 갖고 있다.³³⁾

현재 세계 섬유 소비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의 단축 등으로 제품의 개성화, 고급화를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해감에 따라 편직업계의 자동화설비 및 고성능기계 등에 의

해 첨단화되고 고급화 되는 가운데 현대 니트웨어에 대한 수요증가세가 지속되어 기술 집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5. 아트화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대량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기계 생산의 의복이 아닌 편안하면서도 장식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의상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대니트웨어에서는 다양하고 독특한 재료의 사용과 제한받지 않는 표현기법의 개발로 창의적 표현영역이 무한하여 미술의상으로부터 발전되고 있다.

1960년대에 이르러 고대니트기법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니팅은 본래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섬유예술의 표현매체로 도입되었고 구미의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니팅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섬유예술을 창출해 내었다. 미술의상에서의 니트웨어는 니팅 고유의 특성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 조직의 변화, 표현양식의 다양화 등에 따라 풍부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미적 개념을 표출시키는 표현매체로서의 능력을 자유로이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적 의상 형태의 표면 위에 예술적 주제 및 이미지를 정교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미술의상에서 표현된 니팅, 크로셰, 마크라메, 네팅, 너팅 등의 기법들은 의상의 조형요소인 형태, 선, 색채, 재질 등을 보다 풍부하게 충족시키면서 독창적인 형태로 현대 니트웨어에 나타나고 있다.³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미술의상의 니트웨어는 기법에 있어서 복합성을 드러내면서 아프리케, 퀴팅, 비드 등을 혼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972년의 '새 코우트(Bird Coat)' <그림 27>는 인체를 새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아프리카 마스크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면서 여러 가지 모티브를 덧붙이거나 주름을 잡아 다양한 텍스처를 냈다. 또한 롬-니팅으로 제작된 것은 드레이프성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형태로 재구성하기 쉬워서 독창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형태는 현대 니트웨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³⁵⁾

이러한 현대 니트웨어의 아트화는 더욱 고급화 추세로 나아갈 것이며, 다양한 표현구조로 인해 고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예술적 측면에서 독창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V. 결론

니트의 오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으로서 대중화되고

본격적으로 발전되어진 192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1990년대까지의 현대니트웨어에 대한 변천과정과 특성을 연구한 결과,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서, 특히 니트웨어에서는 직물과는 다른 특성과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니트웨어의 생성기인 1920년대는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스포츠의 경향에 힘입어 스포티감각과 유니섹스 이미지의 모던하고 심플한 박시 라인의 니트웨어가 유행하였다.

스포츠의 대중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미국의 기능주의와 현대 예술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 운전과 골프,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에 적당한 따뜻하고 편안한 니트웨어가 부유한 계층의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샤넬은 최초로 저지를 정장에 사용하고 니트를 정구복장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손뜨개로 만든 착시를 이용한 초현실적인 경향의 니트웨어를 유행시켰고 남자들의 여러 색을 혼합하여 짙 웨어 아이슬 짜기의 니트웨어가 유행하였다.

니트 산업의 보급기인 1930년~50년대의 니트웨어를 보면, 1930년대의 니트웨어는 보다 페미닌한 방향으로 나아가 조직과 디테일이 보다 다양해졌으며 실루엣도 여성의 몸매를 더욱 잘 나타내는 짧고 피트된 스타일이 많았으며 소재는 인조섬유의 개발로 보다 다양한 표면감을 나타내었다. 19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현대니트웨어의 디자인도 점차 심플해지고 실루엣도 다소 여유있어지고 정교한 실루엣의 정장부터 세련된 단품 코디네이트 아이템까지의 다양한 디자인의 니트웨어가 유행하였다.

1960년대의 니트웨어는 캐주얼 웨어, 스포츠 웨어의 발달과 유니섹스의 영향을 받아 진과 함께 젊은 층에게 선호되었고 인조섬유의 발달, 가공법의 발달과 편직 기계의 자동화로 더욱 발달하였다. 캐주얼해보이는 리브조직과 크로셰 기법이 유행하였고 이 시기에 구미의 섬유예술가에 의해 핸드 니팅이 미술의상의 한 영역으로서 발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1970년대와 80년대의 니트웨어는 사회전반에 걸친 여성운동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유니섹스화의 영향을 받아 성숙한 정장이미지부터 캐주얼한 단품에 이르기까지의 토털 개념의 레이어드 룩으로서 중요해졌으며 소재의 다양한 개발과 함께 자연소재의 비중이 커졌으며 빅 룩의 박시한 실루엣과 포클로어나 에스닉의 문양이나 기법, 중의류(重衣類)가 많아지는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입혀졌다.

1990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더욱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나타났

는데, 니트 생산의 자동화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하여 복잡화되고 정교하게 디자인되고 하고,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수공예적인 기법 등으로 창조적인 예술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

현대니트웨어에서 보여진 특성을 살펴보면, 1920년대 이후의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스포츠, 레저에 대한 관심 등으로 현대니트웨어는 기능성을 살린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발전해왔으며, 이는 향후 고감성, 고기능성의 성능을 갖춘 하이테크 신소재와 편직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21세기의 주력 품목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1920년대의 기능주의와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대중화되고 발달하여왔던 현대니트웨어는 그 후 1960년대의 유니섹스화, 1970년대의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1980년대의 앤드로지너스 등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라이프스타일에 부합되어 더욱 발전하였으며, 더욱 자유로운 감성 추구의 수단으로 유니섹스화가 활성화되어 남녀 차별이 없는 캐주얼한 아이템으로서 정착하였다.

현대니트웨어의 특성으로 고부가가치화와 기술 집약형을 들 수 있는데, 컴퓨터를 내장한 자동 편직기의 발달과 더불어 소재의 개발에 의한 특수질감의 소재와 조직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더욱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미적 표현감각에 힘입어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제품으로 발전되어 이는 눈부신 니트산업의 기술 집약화에 힘입어 니트에 대한 수요와 생산의 비중은 날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니트웨어는 1960년대부터 구미의 섬유 예술가들이 니트 기법을 순수 예술 자료로 응용하기 시작한 결과의 상 디자이너는 물론 순수 섬유 예술을 하는 작가들에게까지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최근에는 독특한 특색을 지닌 니트웨어가 세계 유명 컬렉션에 발표되어져 형태와 기법면에서의 독창성은 물론이고 조형적 가치로도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櫻井行南, 生方博子, The Art of Knitting : 編物の歴史, 日本ヴォ-グ社, 東京, 1979, p.10.
2. 相原英勝, ニットの 智識, 洋品界, 東京, 1978, pp.14-15.
3. 한국섬유공학회, 섬유제품용어집,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7, p.14.
4. 이순홍, 편물, 수학사, 1997, p.23.
5. 김성연, 피복재료학, 교문사, 1986, p.318.
6. 김석근, 메리야스공학, 문운당, 1991, p.2.
7. 한국섬유공학회, 섬유제품기술지침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7, p.7.
8. 백영자 외,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1, p.422.
9.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1, p.330.
10. 허 준, 파리모드 200년, 유림문화사, 1995, p.182.
11.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371.
12. J. Anderson Black 외,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2, 자작아카데미, 1997, p.193.
13. 신상옥, 앞 글, pp. 339-340.
14. 정홍숙, 앞 글, p. 382.
15. J. Anderson Black 외, 앞 글, p.221.
16. 정 홍숙, 앞 글, p.390.
17. 신상옥, 앞 글, p. 355.
18. Debby Robinson, The Encyclopedia of Knitting Techniques Emmaus, Rodale Press, 1987, p.12.
19. 이정희 편, 니들아트, 경춘사, 1990, p.64.
20. 신상옥, 앞 글, p.362.
21. 구방희, 현대 니트웨어에 미친 미술의상의 영향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2.
22. 서제일 외, 니트 산업의 구조와 발전방향, 산업연구소, 1987, p.49.
23. 섬유연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5, p.152.
24. 인치희, 현대 미술의상 운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18-19.
25. 구방희, 현대 니트웨어에 미친 미술의상의 영향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pp.38-39.
26. Anspach Kalyne, The Way of Fash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316.
27. Maclerell Alice, Coco Chanel, B. T. Batsford Ltd., London, 1992, p.29.
28. 유송옥 외, 복식문화, 교문사, 1996, p.157.
29. 채금석 역, 패션세계입문, 경춘사, 1997, p.123.
30. Richard Rutt, A History of Hand Knitting, B T Batsford Ltd., London, 1987, p.141.
31. 김은숙, 위 · 편직물의 편환밀도에 따른 물성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86.
32. 이순홍, 앞 글, p.20.
33. American Craft, Oct./Nov., 1983, p.29.
34. 구방희, 앞 글, p.1-2.
35. 구방희, 앞 글, p.20.